

300-5-114. 신문조서(李載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2

■ 1936년 12월 30일부터 1937년 1월 19일 사이에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 徐球源을 비롯, 李載裕·邊雨植·崔浩極·金楨德·尹在璿·金文鉉·朴基錫·朴林先의 신문조사서와 金點奉의 청취서, 李載裕·梁成基에 대한 수색조서 그리고 徐球源에 대한 差押調書 수록

-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徐球源은, 1936년 12월 30일부터 1937년 1월 15일까지 7회에 걸쳐 신문한 결과, 이재유 등과 회동·협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혐의의 증거로 자기비판 등의 차압조서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제시되었다.
 - ② 李載裕는, 1936년 12월 30일 수색조서를 비롯하여 1937년 1월 8일·15일 2회에 걸쳐 신문한 결과, 서울농업학교 내에 南萬熙가 지도하는 좌익 서클의 영향을 받아 동 학교 내에 반제 서클을 조직, 공산주의 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투쟁하였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운동, 자유를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소비에트동맹 사회주의 건설의 절대지지 투쟁, 민족개량주의 낙원인 천도교, 동아일보, 홍사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분쇄를 위한 투쟁 등을 전개했다.
 - ③ 崔浩極의 1937년 1월 8일 제5회, 1월 12일 제6회, 1월 16일 제7회까지의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유와 서규원 등의 지도를 받아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 목적 달성을 위해 투쟁하였다.
 - ④ 邊雨植의 1937년 1월 3일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재학중 좌익독서회를 조직하였다가 검거되어 퇴학처분을 받고, 이재유 등과 회합하여 공산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하였다.
 - ⑤ 閔泳憲의 1937년 1월 4일 치안유지법 위반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양반출신의 23세 회사원인 그는 공산주의자 변우식과 회합하여 그에게 동조하였다.
 - ⑥ 梁成基의 1937년 1월 4일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호극과 회합, 『赤旗』(一號) 등을 통하여 발행기금을 모금하고, 운동자의 운동 기금을 위해서도 운동전선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 ⑦ 全昌洙의 1937년 1월 16일 제2회 치안유지법 위반 신문조서 내용은, 左翼書籍을 李鍾局으로부터 빌려 권헌상과 김용성에게 읽혔다는 것이다.
 - ⑧ 尹在璿의 1937년 1월 17일 신문조서 내용은, 최호극의 지도 밑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독립과 공산화 목적수행을 위해 조선공산당재건 서울준비 서클을 상공학원 최호극·양성기와 같이 조직하고, 좌익서적을 통독하였다는 것이다.
- 그 외 金文鉉에 대한 지호엽의 증언 신문조서, 그리고 朴基錫·朴林先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색조서, 『赤旗』(一號), 『국치기념일의 역사』 등이 편철되어 있다.